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9 | APRIL 2023



1814年 出生  
1846年 3月 20日 殉教

李干蘭  
아가타  
聖人

2023.03.17

정도문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4월호 / 통권 309호

발행일 2023년 4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309 | APRIL 2023

|           |  |
|-----------|--|
| 렌즈로 보는 세상 | 4  |
| 함께 읽는 성경  | 6 성경 묵상을 시작하며  |
| 교회의 가르침   |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br>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br>18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br>22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br>2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 신앙과 삶     | 28 기도와 응답  |
| 듣다 읽다 보다  | 30 고전 음악을 듣다<br>36 함께 읽는 세계 문학<br>44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br>48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br>54 정석의 이 도시<br>60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 직장사목팀 소식  | 66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 THE COVER

성 이간난 아가타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빛나는 봄에 새로운 생명과 삶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  
설레는 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윤정민 마틸다

## 성경 묵상을 시작하며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 1.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학생 시절, 동기들과 의기투합해 지도 신부님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까?”

“네!”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어.”

성경 읽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어느새 말씀에 머무르게 되고 어떤 말씀은 마음속으로 들어오며 그 맛을 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하느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작용되고 있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재미가 없으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지요. 성경 읽기와 묵상도 마찬가지로 굳은 의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 2. 성경은 인간의 글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썼지만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뽑아서 성경의 감도를 받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옮긴 것이기에 저술 당시의 환경, 상황에 맞추어 쓰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신앙 공동체의 체험의 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문화, 역사, 구체적인 삶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이해가 잘되고 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신앙의 보물창고인 성경은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첨가되고, 다듬고 심화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원 저자는 하느님 한 분 뿐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생각과 내용을 제공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인 하느님의 생각과 사상을 대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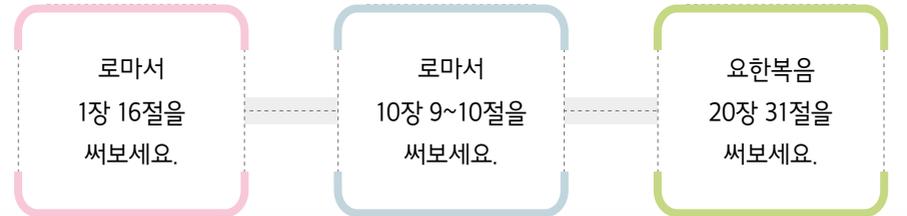
**3. 성경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이 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구약이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이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이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떻게 그 계약이 이행되었고 완성되었는가 쓰여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계약)를 맺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집트 탈출 이후 시나이에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받들기로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각 부족 대표들에게 계약 조건인 ‘율법’에 순종하며, 하느님의 다스림 밑에 서로 화평하게 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 즉,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느님께 나가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신앙에 근거한 공동체였습니다.

**4. 성경을 통해 실제적인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작용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로 쓰여진 책이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뜻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자요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이사 52,7참조).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뇌, 갈등, 불안, 욕심, 교만 등에서 해방될 때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며, 이 참생명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

성경 쓰기 .....



##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 고해성사(1), 회개와 치유의 성사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하느님 안에서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그 은총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인간은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나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 좀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리라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라서 세례성사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간직하고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회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라고 매우 중요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423항에서는 고해성사를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오심을 성사적으로 실현하므로 회개의 성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지니는 이러한 “회개”의 의미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회개를 받아들이기에도 스스로 지닌 부족함과 나약함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어려움과 부담스러움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회개”한다는 것, 곧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능력과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32항의 내용에서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는 인간의 회개를 반기시고 격려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는 어려움도 겪겠지만,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으로 복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해성사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 곧,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사”가 고해성사의 중요한 의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고해성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적인 이해는 고해성사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성찰하거나 반성하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해 얻게 되는 용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32항

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용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또 다른 ‘마음의 빛’을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온전한 화해와 죄로 인해 단절된 당신과의 친교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화해와 친교를 이루는 주체가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 또한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용서와 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43항은 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적극적인 용서와 친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고해성사가 참된 회개와 치유의 성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친교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용서 받은 죄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은 바로 “공동체”였기 때문입

니다. 그 “공동체”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를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였고, 그가 받은 용서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들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잃었던 하느님과의 친교, 그리고 교회와의 친교를 회복하였음을 몸소 체험하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용서받은 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은 그가 속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이를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840항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닫히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사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용기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 세상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⑥

## 인간 공동체와 ‘공동선’, 가톨릭교회 사회교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1. 공동선(共同善) -

#### 정치 권위(국가)의 존재 이유(「가톨릭교회 교리서」, 1910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를 통해 ‘형제애(관계)와 사회적 우애’를 교회의 복음화 사명인 ‘인간 존엄’의 증진과 ‘공동선’의 실현을 이끄는 동인(動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선에 관하여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화합), 평등에서 나왔다. 근본적이고 또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 공동선이란 사람들이, ‘집단들로서든 개인들로서든, 더욱 충만하게 또 더욱 쉽게 자기완성에 도달하게 해주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화(總和, 전체)’를 가리킨다”(「간추린 사회교리」, 164항).

‘자기완성’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전하도록 만들”(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는데, 인간으로서 그 존엄한 품위에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靈)이 있어 초월(하느님)을 향한 본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하며(종교), 마음과 정신이 있어 고상한 가치를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문화). 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자유로이) 선택하고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정치), 몸이 있어 그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해야 합니다(경제). 이런 사회생활 조건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개인들로서든 집단들로서든,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조력(助力)이 있어야 자기완성의 삶에 더 가깝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조력은 가족과 지인의 조력과 같은 사적(私的)인 형태와 성격에서부터 교회, 국가, 회사의 조력과 같은 공적(公的)인 형태와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 조력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조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사회적 약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공적·사회적 성격과 형태의 조력(사회적 우애)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선을 사회생활 조건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총화(전체)’라 한 것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문화·정치·경제생활 조건들 따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기능(機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터에 기반하며 동시에 그 ‘사회’의 ‘삶(생활)을 구성(構成)하는 필수 조건들’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조건 때문에 노동의 기회를 잃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경우를 상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과 인권들의 실현과 마찬가지로, 공동선의 실현도 개인들로서든 집단들로서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책무이며 동시에 그 목표이지만, 특별히 오늘날 국민 국가 시대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 2. 공동선(共同善) -

#### 아름다운 정원 같은 건전한 사회

‘자기완성(인간 존엄)’과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화(공동선)’는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

된 두 실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회’, ‘완성(선, 善)’을 위한 사람의 활동과 ‘사회생활 조건들(공동선)’ 사이의 불가분한 그 관계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1코린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이 공동선을 지향(志向)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줍니다”(7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주적) 공동선’을 위해 활동하신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만물(萬物)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 그 지체”(27절; 콜로 1:19-20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들 사이의 관계를 옥토(沃土)와 그 정원의 온갖 생물 사이의 관계에 비유했는데, 공동선과 ‘사회의 행위들’ 사이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이를 「간추린 사회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개인(個人)의 도덕적 행위들이 선(善)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처럼, 한 사회(社會)의 행위들도 공동선(公同善)을 일으킬 때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다. 실제로 공동선은 사회적이며 공동체 차원의 도덕적 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164항). 여기서 ‘사회의 행위들’은 보통 문화, 정

치, 경제, 종교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제도와 질서 따위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여러 부문은 **고유의 자율적 질서와 제도**를 갖지만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 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고상한 **사회적 근본 가치들(진리, 자유, 정의, 사랑)**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구성원들과 집단들은 그만큼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삶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회의 정치 제도와 질서 역시, 그 사회 구성원들과 집단들의 삶을 좀 더 품위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독재의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제민(經世濟民)의 경제질서와 제도로 ‘민’ 전체의 살림살이를 지향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게는 호기(好機)를, 다른 대부분에게는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출 수도, 그늘을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선의 실현**이, 인간 존엄과 인권의 존중(자기완성)과 함께, 지상의 역사 과정(무대)에서 모두의 ‘소명(召命)’이기에 **건전한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 평화 구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방형 노력, 모든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끝없는 작업입니다. 이 과업은… 우리에게 최고의 존엄을 누리는 인간의 인격과 공동선의 존중을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에 놓으라고 요구합니다”(회칙 「모든 형제」, 232항).

### 3. 공동선(共同善) - 정치 공동체의 과제(「간추린 사회교리」, 168-70항 참조)

공동선은 마치 옥토의 정원 같은데, 그 옥토(인간 존엄과 인권의 보장)와 정원(사회생활 조건들의 총합)을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지만, 특히 정치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치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기업을 경제 공동체, 학교를 문화 공동체라 한다면 국가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을 정치 공동체라 합니다. **정치(政治)**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자세는 **정치의**

**그 수단과 역할(또는 그 본령)**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루의 필기도구가 유용한 이기(利器)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해치는 흉기(凶器)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정치 활동에 있어 권력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권력은 언제나 인간 존엄과 인권의 증진(인간다운 삶)과 공동선의 실현(이해의 조정과 올바른 사회 질서 세우기)에 복무해야 하며, 그럴 때만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갖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이행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언제나 그 나름대로 일리(一理)가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보편 복지나 선별 복지의 접근방식이, 사회의 책무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해들이 서로 달라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는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조정하여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국가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민도, 대중 매체들도, 정치인들도 입으로는 정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활동의 수단인 그 권력의 쟁취, 곧 정쟁(政爭)에 과하게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

치 공동체는 공동선으로 위장(僞裝)된 ‘집단들의 이익’ 사이의 전장(戰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타락합니다. 그곳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겪으며, ‘아직 유용하지 않은’ 이들과 ‘더는 필요 없는’ 이들을 내다 버리기까지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 시대 절박하게 ‘**사회 및 정치 차원의 카리타스**’ 회복을 호소한 배경입니다(「모든 형제」,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 참조).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명도회장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복자(3)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정약종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릇 사람이 밝은 거울에 비치면 거울 속에 그 얼굴이 나오고, 또 사람이 마음에 한 가지를 사랑하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정이 나오니, 천주도 이러하시어 무시(無始)로부터 그 무한히 아름다운 체(體)가 무한히 밝은 마음 가운데 비치어, 무한히 아름다우신 얼굴을 내시니, 그 얼굴이 이미 당신 얼굴이요, 또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한히 아름다우신 정을 발(發)하시니, 그 발하신 사랑이 또한 당신 사랑이시라.”

정약종은 이러한 거울과 마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사람은 육체로 걸려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경우는 세 위(位)가 형체에 걸리지 않고 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 나의 허상이지만, 나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보고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성부

의 경우는 자신과 똑같은 성자를 지상에 보내 주십니다. 성자(聖子)는 마치 거울에 비친 성부(聖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자의 얼굴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닮은 것이 상으로 똑같은 성부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정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보통은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무한히 사랑하시는 성령의 마음은 성부와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 변하지 않은 사랑의 정(情)이 바로 성부의 마음입니다. 풀어 설명했는데 더 어렵다고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신비 아닌가요?

정약종은 이어서 성부, 성자, 성신(聖神=현재는 ‘성령’)은 서로 먼저와 나중의 구별이 없다고 하면서, 세 위(位)는 사람처럼 형체에 걸리지 않으므로, “하나의 체(體=몸)”라고 설명합니다.

『주교요지』는 당시 이교(異敎)와 미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할애합니다. 자신이 한때 쫓아갔던 도교의 신선 사상을 비판하고, 불교

의 윤회설이나 부처를 신성시 하는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 유학자들은 천주교의 천당지옥설 등을 토대로 천주교를 서양에서 들어온 ‘불교의 한 별파(別派)’로 취급하면서, 불교의 아류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정약종은 이에 대해 천주교가 불교와 같지 않음을 충분히 해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회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 대목을 들어봅시다. “...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육신은 썩어 흙이 되니, 환생(還生)하는 일이 있을 양이면 응당 영혼이 환생할지라. 한 영혼이 여러 세상을 지내고 많은 일을 겪어 보았으면 그 중에 전생 일을 생각할 이가 있을 것이어늘 천지 개벽한 후로 어느 사람이 능히 전생의 부모 있던 줄을 생각하며 전생의 성명이 무엇인 줄을 기억하느냐? 사람이 자주 잊는다 한들 제 부모와 성명을 어찌 잊어버리리오? 전생이 없는 고로 전생 일을 생각지 못하니라. 또 사람이 환도(還道)하여 짐승이 된다는 말이 만 번 허망하니, 사람이 만일 짐승이 되어 개도

되고 소도 될 양이면 몸은 개 물골과 소 물골을 썼을지라도 혼은 사람의 혼이 박혔으니, 응당 사람같이 영(靈)한 개와 영(靈)한 소가 있으려만는, 세상에서 사람과 같이 영리한 개와 소를 누가 본 이 있느냐? 칼은 칼집에 박고 활은 활집에 박아야 서로 맞으리니, ... 짐승의 혼은 짐승의 몸에 박아야 맞을지라...” (상편 21장)

『주교요지』 상편의 마지막 부분은 상선벌악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지상의 삶과 행동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상벌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정약종은 세상의 상과 벌로는 사람의 선악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죽음 이후에 온전히 결판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릇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어찌 빈천 고난을 받으며, 몹쓸 놈이 어찌 부귀 복락을 받노고?”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사람도 한두 가지 그른 일이 있는 고로 천주 지극히 공변되시어, 한 가지 그른 일도

별하지 아니하심이 없기에, 세상에 작은 괴로움으로 그 작은 죄를 속(贖)하시고, 죽은 후에는 큰 복락으로 큰 공덕을 갚으시며, 몸쓸 놈도 한두 가지 착한 일이 있는 고로, 천주 지극히 어지시어 한 가지 착한 일도 갚지 아니하심이 없기에, 세상의 작은 복락으로 그 작은 공을 갚으시고 죽은 후에는 큰 형벌로 큰 죄악을 다스리시나니, 이 세상에 착한 이도 혹 괴로움을 만나고 몸쓸 놈도 혹 즐거움을 얻음은 그 죽은 후를 기다려 상과 벌을 결단하시려 하심이니라.”

정말 세상의 일은 때때로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약종이 가르치는 교리가 참으로 맞고 올바르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온전히 결판난다고 하니, 마치 순교자들이 대역죄인으로 죽은 후 한참 뒤에나 순교자로 현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지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몸쓸 놈”이 되고 마니까요.

유교에서는 혼(魂)을 기(氣)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기운이 움직여 활동하고 사고하고 생활하다가, 기운이 떨어지면 육신은 백(魄)으로 땅에 묻히고, 혼(魂)은 그 기운이 흩어져 점점 사라진다고 여

깁니다. 그러나 정약종은 사람의 영혼만큼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아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구분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짐승의 혼은 제 몸에서 생기므로 배고프고 배부르고 춥고 더운 것이 제 몸에 붙은 일만 알기에, 죽으면 그 몸에 붙었던 혼도 따라 없어지고, 사람의 혼은 제 몸에서 생기기 아니라, 몸이 태어날 때 천주가 신령한 혼을 붙여 주시니, 그런 고로 제 몸 밖의 일도 좋아함이 있고 싫어함이 있으니, 말하자면 남이 나를 기림(칭송함)으로 내 몸이 배부를 것이 없되 공연히 좋아하고, 남이 나를 훼방함으로 내 몸이 아플 것이 없되 공연히 싫어하니,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몸으로 솟아 나지 아니하고 혼으로부터 나오니,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과 달라 영혼이 따로 있기에, 몸이 죽어도 영혼은 따라 죽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설명을 오늘날 관점에서는 심리학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살던 정약종의 입장에서는 영혼에 대한 확신에 찬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약종은 천당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면서, 상편의 마지막 대목에서 지옥의 벌은 천당의 무궁한 복락에 비해 끊이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비유 하나로 설명합니다. “...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천주 이르시되, ‘한 마리 개미가 바닷물을 일 년에 한 모금씩 물어내어 그 바다가 다 마르거든 지옥의 괴로움을 그치리라.’ ... 그 바닷물은 마를 때가 있으려니와 지옥 괴로움을 그칠 때가 없는 줄을 아는 고로, ... 그 아프고 설움이 어찌 다시 비할 데 있으리오?” 아주 열심히 개미가 꾸준히 바닷물을 옮기면 그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바닷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겠지요.

정약종은 상편을 마무리하면서, 사후의 상벌 곧 상선벌악은 이치를 따져보아도 맞는다고 강조합니다.

“세상 일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믿을 길이 없고, 이치(理致)로 생각하여야 참으로 미더운 지라, 저 달을 눈으로 보면 쟁반만 하고, 이치

로 생각하면 쟁반보다 억만 배나 더 크니, 눈으로 작게 보이는 것은 믿을 것이 아니요, 이치로 큰 것이 옳으니라. ... 세상 임금의 상과 벌을 보면 어찌 천지 임금의 무궁하신 상벌이 없다 하리오?”

현대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살기 바빠서 이치(理致)와 믿음을 외면합니다. 정약종은 상편 마지막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을 권고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천주를 믿어 선을 행하였으면 공(功)이 되어 유익하려니와 죽은 후에 천주를 믿고 비록 한탄하나, 무슨 효험(效驗)이 있으며 어찌 늦지 아니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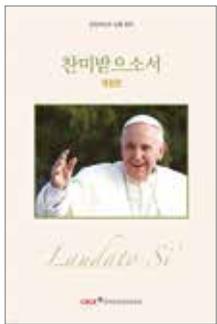
### 묵상

지금 당면한 고통에서 지나치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치(理致)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먼 훗날 하느님과 대면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것도 결국 지나가리라는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국제적 대화, 지역적 행동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가톨릭 사회윤리의 기본적인 3단계 전개 방식을 따라 관찰(See) - 평가(Judge) - 행동(Act)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살펴볼 장들은 회칙의 구성상 마지막 단계로서 생태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5장은 다양한 대화를 통한 접근법과 행동 노선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회칙이 강조하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 협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일입니다. 생태 위기의 총체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동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치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사회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점을 힘주어 말합니다. “개별 국가만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들을 다루려면 세계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164항). 유엔과 그 산하기구 같은 국제 조직이 이러한 대화의 장이 되어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태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 협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처럼 선구적인 국제회의가 있었고, 1997년 교토 의정서와 같은 중요한 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 계획을 담은 의제들이 마련되었지요.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칙은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나라들의 입장 때문에”(169항) 발생했다고 진단합니다.

이처럼 국제적 협의는 중요한 진척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민 사회 안에서 커다란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165항)의 노력으로 생태 운동은 세계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치와 산업은 지구가 당면한 긴급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반응하는 데에 게을렀던 반면, “시민 사회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환경 문제는 점점 더 공적 의제로”(166항)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대중의 무관심과 힘 있는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 사회의 자각과 열망 속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살아있던 지구적 대응은 결국 중요한 결실 하나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입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마련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얻은 최초의 보편적 기후 합의로서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있어

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파리협정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동이지만 차등적 책임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생태 위기는 공동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적이고 균등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회칙 역시 생태 위기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170항)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그 혜택을 누려온 나라들이 자신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회칙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난한 나라들도 빈곤 퇴치와 사회 발전을 이루고 저공해 에너지 생산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개발 도상국들을 위해 “기술 이전과 더불어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와 도움”(172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어떤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난한 국가들을 돕는 것은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에 비하면 적은 비용입니다. 그들이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회칙이 “모든 민족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결단”(172항)을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지역 차원의 노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범 지구적 사고

에 기반한 지역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개인과 단체의 차원에서는 더 큰 책임감, 더 강한 공동체 의식, 특별한 보호 능력, 더 많은 창의력, 자기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을”(179항)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역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쉽게 고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중심적인 접근은 현지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국가 차원의 정책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그 책임을 떠맡는 데 무력한 반면에, 지역의 개인들과 시민 사회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179항)는 점을 잊지 맙시다.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나누는 마을 텃밭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역적으로 자급자족하려는 협동조합의 예처럼, 작은 규모의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도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한 공동체들이 연대하여 생태 환경 법률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지자체의 정치적 권력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컨대,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정치적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실행 가능한 국제 협약을 만들고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 협의와 지역적 실천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질 때, 생태적 전환을 향한 희망도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녀 살로메

St. Salome (축일: 4월 2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우리는 매번 미사 전례에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때부터 시작된 풍습이었고, 서로가 성만찬에 참여하여 빵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하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평화의 인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기 존에 성직자들끼리만 나누던 인사를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것으로 확대 시키면서 오늘날처럼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평화의 백성이 되고자, 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shalom”(Shalom), 곧 평화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서로 인사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shalom, shalom 그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예수님처럼 성부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그 사랑에 심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는 그 사랑을 위해 아무 것도 바라거나 원하거나 고집하지 않는 마음의 가난이 있을 때에만 진

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극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다 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서 주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일념 뿐일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살로메** 성녀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정확히 그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는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마르 16,1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살로메는 주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세 명의 거룩한 마리아’ 중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충실히 따른 여성 제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 야고보 사도와 성 요한 복음사가의 어머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과 가까이 지

냈고, 주님 부활의 목격증인이었습니다. 평화의 주님과 매우 친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주목해 봅시다. 살로메라는 이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모두가 같은 히브리어 어원 **shalom**(Shalom, שלום)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곧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에이지나 불교 명상 등에서 이미지화하는 평화와 성삼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이라는 주도권 문제이며, 누구의 마음이 열쇠인지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전자는 인간이 스스로 탐구하고 진력하여 얻는 인간의 노력이 절대적이라면, 성삼위 하느님의 평화는 그분 본성인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스며드는 전적으로 거져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평화를 위해 열심히 용맹정진해야 한다면, 후자인 성경적이고 하느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화’는 우리가 아무 것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고집하지도 않는 ‘마음의 가난’을 통로로 삼아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 5,3에서 말씀하신 바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통 주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해야 할 정도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으며, 주님의 것들이 우리 영혼 안으로 깊이 내주(內住)



하시도록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는 열린 마음 가짐만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솔로몬도, 살로메 성녀도, 성삼위 하느님 나라의 평화는 오직 자기자신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직접 내 영혼육신 온 존재의 통치자가, 잔소리꾼이 되시도록 기어코 우리 자신을 도로 바치는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충실히 따랐던 살로메 성녀처럼, 주님께 “듣는 마음”(1열왕 3,9)만을 청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

## 기도와 응답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토마스 형제는 30대에 영세한 후 주일미사만 열심히 참석하는 신앙인이다. 그런 그가 요즘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강렬한 응답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본당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방법과 그 응답에 대한 체험을 물어도 보았다. 그들은 성체조배를 1시간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다. 또 묵주기도를 50단 정도 바치다 보면 성모님을 뵈듯 장미 향기를 맡았다는 체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성령 세미나를 통해 전해 듣는 뜨거운 성령 체험 등, 본당에서 이러저러한 기도 방법과 응답에 대해 들었다.

토마스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고,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도 많기에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기에는 마음이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 또 평상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하느님의 응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신비체험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 Question

평상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 루카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 필리피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평상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지만 다급한 사태가 벌어지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경우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내가 항상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팔 안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며,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주께서 주시지 않으려던 은혜를 우리가 청하면 그분은 전능하고 부유하신 분이기에 단신의 영광에 대한 실망을 우리에게 끼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는 바라는 은혜를 받기에 부당한 자인 줄 잘 알고 있사오나 불쌍한 거지처럼 당신께 손만 펴면 주께서 나를 채워 주실 줄 믿나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1893년 7월 18일

셀린에게 쓰신 편지 중」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의라는 고자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곳에서”(시편 130(129),1)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드높여진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로마 8,26).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59항]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한 4,10). 역설적으로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다. “내 백성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예레 2,13). 청원 기도는 무상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외아들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찬 응답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6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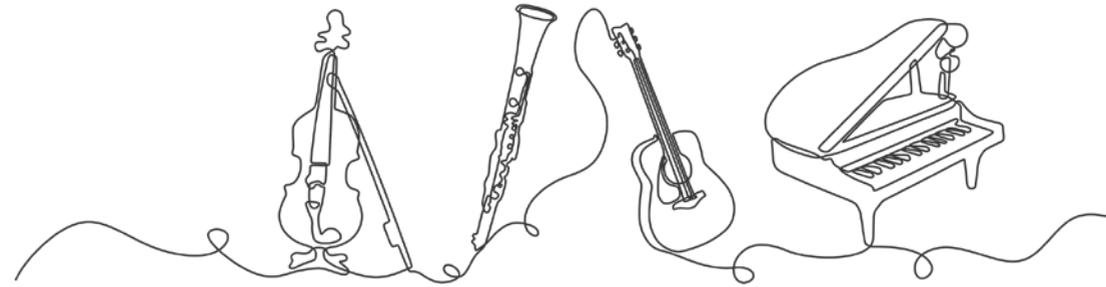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드보르작 (1) - ‘스타바트 마테르(성모애가)’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안토닌 드보르작(Antonin Dvořák, 1841-1904)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하의 보헤미아 왕국(현재 체코)의 프라하 근교의 넬라호제베스(Nelahozeves)에서 태어났다. 그의 음악은 ‘유모레스크(Humoresque)’와 같이 보헤미아 특유의 애수 어린 선율로 민속적 색채가 강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다. 그의 **현악4중주 12번 F장조 Op.96** ‘아메리카’나 **첼로협주곡 b단조 Op.104**의 애수 어린 보헤미안 멜로디는 어쩌면 우리 민요를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한(恨)’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 뿐만 아니라, 그 흥겨움에서도 우리와 통한다. 우리나라의 흥겨운 모임에서 누구나 부르고 야구장 등에서 대중이 “뽐뽐뽐 뽐뽐뽐뽐뽐”라며 함께 외치는 흥겨운 멜로디가 사실은 알고보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 4악장의 주제다. 드보르작하면 우선 그 애절한 보헤미안 멜로디이므로 여기서는 그의 애절한 ‘한’, 두 개를 중심으로 그에 얽힌 음악을 소

개하고자 한다. 원래 드보르작은 영세한 정육점을 운영하는 대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드보르작은 6세의 나이에 보헤미아의 분위기답게 벌써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다루어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장남에게 정육점의 가업을 잇게 하려고 13세때 독일을 배우게 했다. 당시 보헤미아(체코)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라 독일을 배워야 사업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그의 독일어 선생님 리만이 음악가이기도 하였다. 리만은 드보르작에게 독일어 외에도 음악 이론과 비올라, 바이올린, 피아노, 오르간 등을 가르쳐 주었고, 드보르작의 음악적 재능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사이 드보르작은 결국 아버지의 바람대로 정육점 면허를 취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획과는 달리 음악에만 관심을 갖자, 아버지는 리만을 떠나 다른 마을의 다른 선생에게 독일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런데 운

명이었는지 새 독일어 선생님도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기에 드보르작은 오르간 연주와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된다. 완고했던 아버지도 드보르작의 외삼촌까지 가세하여 설득하자 결국 포기하였다. 1857년(16세)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 입학한 드보르작은 졸업 후, 일류 호텔의 반주를 맡는 ‘카렐 콤파크 악단’의 비올라 연주자로 겨우 활동하면서 개인 레슨을 하며 어렵게 지냈으나, 1862년 최초로 체코인을 위한 ‘체코 국립극장’이 설립되자 여기의 비올라 주자가 되었고, 당시 지휘자였던 스메타나를 만나 그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작곡가로 성장하게 된다. 20대의 청년 드보르작은 그 극장에서 1865년 젊은 여배우 요세피나 체르마코바(Josefina Čermáková)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그는 체코의 시인 플레거-모프라스의 시를 가사로 한 총 18곡의 연가곡 ‘사이프러스(Cypresses, 체코어: Cypřiše, B.11, 1865)’(후에 현악4중주로도 편곡됨)을 요세피나에게 바쳐서 애뜻한 마음을 고백했

지만 그녀는 오스트리아 귀족인 카우니츠 공과 결혼해 버렸고, 그는 절망하였지만 평생 그녀와 가까이 있는 길을 택하였다. 가까이 보기라도 하려는 심정으로 드보르작은 요세피나의 동생인 안나(Anna)와 1873년(31세)에 결혼을 한 것이다. 아내와 함께 요세피나의 집을 방문할 때면 자주 연주했던 그의 **‘네 개의 가곡(4 Lieder Op.82)’** 중 제1곡 ‘나를 혼자 내버려 주세요(Lasst mich allein, 체코어: Kéz duch můj sám, 1888)’는 요세피나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다. 그래도 드보르작에게 헌신적인 아내 안나로 인해 곧 드보르작은 안정을 되찾았고, 1873년 작곡상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연간 400굴덴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때 제출했던 그의 교향곡 2곡과 다른 작품들이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의 눈에 띄게 된다.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작품들을 출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속 출판사 짐록에도 연결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다. 이때 짐록에서 1878년과 1886년 두 차례에 걸쳐



**Dvořák: Stabat Mater for soloists, choir and piano**

Julia Kleiter (soprano), Gerhild Romberger (mezzo), Dmitry Korchak (tenor), Tareq Nazmi (bass), Julius Drake (piano)  
Chor des Bayerischen Rundfunks, Howard Arman

Release Date: 27th Sep 2019  
Catalogue No: 900526  
Label: BR Klassik  
Length: 58 minutes

출판한 피아노 연탄곡 ‘슬라브 무곡’(제1집 Op.46 8곡, 제2집 Op.72 8곡)은 피아노의 보급과 더불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함께 그 유명세를 더하였다. 그러나 1873년 결혼 후 드보르작에게 행복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드보르작이 결혼한 이듬해 1874년 4월, 첫아들 오타카르가 태어나고 연년생으로 요세파와 루제나가 탄생하지만, 1875년 둘째 요세파는 생후 이틀 만에 숨졌다. 1877년에는 11개월된 딸 루제나가 성냥을 만들기 위해 보관 중이던 인공약을 마시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엿친데 덮친 격으로 4주 뒤에 다시 첫째 오타카르마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다. 3년 동안 연년생으로 얻은 세 아이를 모두 잃은 것이다. 평소 집 앞 기차역에서 증기 기관차가 들어나는 것을 늘 메모하였던 드보르작이었으나,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아이들을 기다리며 매일 늦은 시각까지 슬픈 표정으로 역전에 서 있곤 하였다. 영국에서 처음 지역간 철도 노선이 탄생하고 20년 뒤 드보르작이

9살이던 1849년, 프라하 교외의 벨라호제베스에 처음 놓인 철도에 매료되었던 드보르작은 프라하의 음악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매일 아침 터널 위에 올라가서 프라하역으로 가고 오는 열차의 번호를 전부 메모할 정도로 ‘1세대 철도 마니아’였었다.

그러던 그가 슬픔을 딛고 위안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으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서였다. 드보르작의 그러한 절망감과 슬픔은 1874년 착수하여 세 아이를 모두 잃은 1877년 완성한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 Op.58)’에 그대로 드러난다. 총 10곡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대곡으로 4명의 독창, 혼성 4부, 합창, 오르간, 그리고 관현악으로 구성되어 드보르작 생전에 가장 자주 연주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바쁜 청자는 우선 라르고(Largo)의 느린 제4곡과 제9곡이라도 들어보라. 제4곡(Op.58-4) ‘제 마음을 불타게 하소서(Fac, ut ardeat



**Dvořák: String Quartets Nos. 12 & 13  
Pavel Haas Quartet**

Release Date: 1st Nov 2010  
Catalogue No: SU40382  
Label: Supraphon  
Length: 63 minutes

cor meum)’의 전주곡에 이은 알토 또는 베이스의 솔로(solo)가 들려주는 애절한 멜로디는, 자식을 잃은 드보르작의 슬픔과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아래의 성모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제9곡(Op.58-9) ‘불길 속에서 타들어 가더라도(Inflammatum et Accensus)’는 처절한 비통함 그 자체였다.

라틴어 ‘스타바트 마테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standing mother(서 계신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어머니, 또는 성모 애가’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6세기 수천 곡에 달하던 부속가를 트리엔트 공의회 때, 4개로 한정했을 때에도 살아남은 부속가로서, 17세기까지는 일부 수도원에서 ‘고통의 성모 기념일(9월 15일)’을 기념하는 전례음악(부속가)으로 불리다가, 1814년 교황 비오 7세를 통해 전 교회의 축일로 제정되면서 널리 불리게 되었다. 슬픔과 고통의 곡이 스타바트 마테르이기에, 무명의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의 작곡가들을 지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곡한 음악가들은 자신의 애닦은 슬픔의 경험도 이 곡에 녹여내었기에, 특히 르네상스의 죠스캥 데 프레(1450-1521), 팔레스트리나(1525-94)를 거쳐 바로크 이후의 비발디(1678-1741), 페르골레시(1710-36), 로시니(1792-1868)의 스타바트 마테르도 우리의 가슴을 찌른다.

1880년 12월 23일 프라하에서 초연된 드보르작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1882년에는 레오스 야나체크(Leos Janacek, 1854-1928)까지 지휘를 하였고, 드디어 바다를 건너 1883년 런던에서 연주되고 1884년에는 로알 엘버트 홀에서 연주되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크나큰 불행은 녹여낸 그의 스타바트 마테르가 영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이제 국제적 명성을 얻은 드보르작은 1890년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가 되지만, 1892년 무려 프라하 음악원 연봉의 25배나 되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뉴욕의 새 국립 음악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Dvořák & Tchaikovsky: Works for Cello & Orchestra**  
Mstislav Rostropovich (cello)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Herbert von Karajan

Release Date: 20th Feb 1995  
Catalogue No: 4474132  
Label: DG



**Dvořák: Complete Symphonies & Concertos**  
Alisa Weilerstein (cello), Frank Peter Zimmermann (violin), Garrick Ohlsson (piano)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Jirí Belohlávek

Release Date: 7th Jul 2014  
Catalogue No: 4786757  
Label: Decca  
Length: 8 hours 4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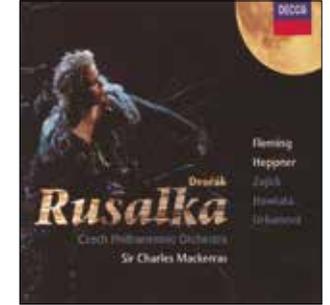


**Dvořák: Lieder**  
Bernarda Fink (mezzo-soprano) & Roger Vignoles (piano)

Release Date: 15th Jun 2015  
Catalogue No: HMG501824  
Label: Harmonia Mundi  
Series: HMGold  
Length: 68 minutes

**Dvořák: Rusalka, Op. 114**  
Renée Fleming (Rusalka), Ben Heppner (Prince), Dolora Zajick (Jezibaba), Eva Urbanová (Foreign Princess), Franz Hawalta (Water Goblin)  
Kühn Mixed Choir,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Charles Mackerras

Catalogue No: 4605682  
Label: Decca  
Series: Opera Sets  
Length: 2 hours 42 minutes



3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그 유명한 ‘신세계 교향곡’, 현악4중주 12번 ‘아메리카’, 첼로협주곡 등을 작곡하였다.

1895년 그의 나이 54세에 다시 프라하 음악원으로 돌아온 드보르작은 실내악과 오페라에 전념한다. 1901년 오페라 ‘루살카’의 대성공에 이어, 1904년 오페라 ‘아르미다(Armi-da) Op.115’가 초연된다. 1904년 3월 25일, 예수 두 살이었던 그는 아르미다 초연 직전, 아직 바람이 찬데도 다른 날처럼 프라하 기차역에 기차를 보러 나갔다가 그만 독감에 걸렸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공연 도중에 나와 병석에 눕게 되는데, 결국 5월 1일 뇌졸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조국 보헤미아(체코)를 넘어 영국에서 케임브리지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드보르작은 25배의 연봉을 받는 미국체류 연장도 거절하고 오스트리아의 종신상원의원(귀족)이 되지만, 빈 체류도 거절하며 자신의 고향을 지켰다. 그의 음

악도 역시 고향 보헤미아의 슬라브 기질대로 변화와 대조의 역동성 속에 피어나는 애잔한 선율로 전통적인 독일음악과는 다른 길을 개척하였다.

필자가 독일유학 시절, 전설적인 ‘스메타나 현악4중주단’의 단원들이 고령의 나이로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 투어를 할 때, 끝없는 앵콜로 시간은 훌쩍 자정을 넘겼는데, 그 마지막 곡이 드보르작의 현악4중주 12번 아메리카의 2악장 렌토(Lento)였다. 백발의 할아버지 단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였다.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이라 기숙사까지 한참을 걸었지만, 귀에는 계속 그 선율이 들려왔고, 그날의 눈물과 애절한 선율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다. 십자기 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밤새 죽어가는 시간의 고통을 함께한 ‘서 계신 어머니(스타바트 마테르)’에 비하면 감정적 사치라고나 할까. 그러나 보헤미안 기질의 한의 정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정화(카타르시스)시켜 준다. 🎵

함께 읽는 세계 문학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느니라.”  
- 응구기 와 시옹오의 『한 톨의 밀알』과 배반의 의미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영문과 석좌교수

“배반. 거창한 말이다. 배반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라와 친구와 애인을 배반한 사람에 대해 얘기한다. 도덕적 유대감이 먼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배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양심이다. 그런데 이것과 나의 양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공통된 믿음이나 확신이 있기에 내가 그 미친 바보 같은 놈이 나를 끌고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가? 정반대다. 진정한 용기의 모든 의무는 다른 쪽에 있다.”

이것은 폴란드 출신의 영국작가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 『서구인의 눈으로』에서 라주모프가 내무부 장관을 죽인 친구 할딘을 경찰에 밀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다. 그를 돌봐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취직해 잘 사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처럼 놀고 즐길 시간도 없다. 당연히 정치에 관심도 없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얘기해본 적도 없는 친구가 그를 정치 속으로 끌고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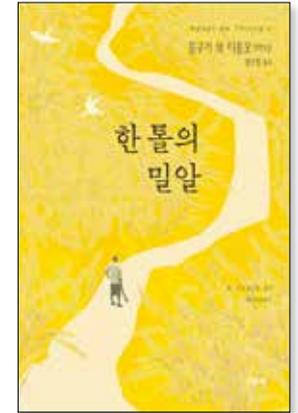
간다. 폭탄을 던져 장관과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하숙집으로 피신한 것이다. 늘 과묵하고 믿을 만해 보인다는 이 유만으로 그를 신뢰한 나머지 그의 하숙집으로 피신하고 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친구를 경찰에 밀고한 것은 배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는 배반이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도덕적 유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공통된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니 도덕적 유대감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덕적 유대감이 없으면 누군가를 배반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을 배반으로 인식하든 안 하든, 무슨 말로 변명하든, 그의 밀고로 인해 할딘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케냐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는 『한 톨의 밀알』에서 콘래드의 소설을 통째로 빌려온다. 그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의 주제와 형식을 빌려 풍자적인 『십자가 위의 악마』를 썼듯이, 콘래

드의 소설을 가져다 썼다. 시간과 공간이 러시아에서 케냐로 바뀌었을 뿐이다. 소설은 영국이 케냐를 식민화하고 지배했을 때 기쿠유 부족이 중심이 되어 벌인 마우 마우 운동(1952-1960)을 정치적 배경으로, 케냐가 영국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우후루(해방)를 쟁취하고 독립한 1963년 12월 12일 이전의 며칠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마우 마우 운동은 아프리카인들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향해 벌인 조직적인 게릴라전이요 무장투쟁이었다. 영국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식민 정권이 존폐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전비를 투입하고 아프리카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숙청했다. 그로 인해 1만 명 이상이 죽고, 1천 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당했다. 아프리카인들은 마우 마우 운동을 지지하는 쪽과 영국 식민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그랬듯 원주민들을 분열시켜 지배하는 정책을 택했다. 무고가 동년배의 마우 마우 운동 지도

자인 키히카를 밀고한 것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였다. 소설이 시작할 때 키히카는 오래전에 죽고 없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플래시백에 의한 것이다.

키히카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안의 똑똑하고 의식 있는 아들로 일찍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게릴라전에 합류한다. 그는 다른 대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영국인들의 요새를 공격하는 데 성공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무자비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인 경찰서장을 혼자서 죽인 것이다. 문제는 그가 무고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고는 키히카를 좋아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키히카와 달리 그에게는 든든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믿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다. 그가 삽과 괭이를 들고 날마다 밭에 가는 이유다. 그의 소박한 꿈은 농사를 지어 언젠가 제



한 톨의 밀알  
응구기 와 시옹오\_저  
왕은철\_번역  
은행나무 | 2016.10.04

대로 된 집을 짓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이 열토당토않은 이유로 깨지게 된다.

키히카는 게릴라전이나 지하조직에 가담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를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키히카는 무고의 집으로 피신할 뿐만 아니라 지하조직에 관한 일을 논의하자고 거의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숲속으로 사라진다. 몇백 명을 거느리는 게릴라 지도자가 자신의 직감만 믿고 정치적 신념 자체가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콘래드의 소설에서 할딘이 아무 근거도 없이 라주모프를 믿었던 것처럼, 키히카는 아무 근거도 없이 무고를 믿는다. 그리고 무고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키히카를 경찰에 밀고한다. 금전적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도 아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키히카가 싫고, 이후로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서웠을 따름이다. 그가 자신의 배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다. 그와 키히카 사이에는 아무런 도덕적 유대감이 없다. 콘래드의 소설에서처럼 응구기의 소설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도덕적 유대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죽게 만들어도 되고 부모에게서는 아들을, 형제자매에게서는 오빠와 형을 빼앗

아도 되는 것일까.

라주모프의 경우처럼, 배반의 여파와 충격은 무고의 삶을 건디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고처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른다. 괴로워하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뭔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무고는 결코 자신의 행위와 자의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그런데 상황은 묘하게 흘러간다. 영동하게도 그가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키히카의 도피를 도왔으며 임신부를 때리는 자치대원에게 반항했고 수용소에서 단식투쟁을 선도하는 영웅적 행위를 했다고 믿고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키히카가 경찰서장을 죽인 뒤 무고의 집으로 피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지 도우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한 여자를 구타하는 자치대원에게 저항하고 수용소에서 저돌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키히카를 밀고해 죽게 만든 것에서 연유한 절망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그를 영웅으로 보이게 했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추앙하고 칭송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다.

콘래드의 소설에 나오는 라주모프도 마찬가지다.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는 할딘의 여동생의 사랑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고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마을을 대표하는 당 지도자가 되어 존경받으며 살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케냐가 영국으로부터 우후루(해방)를 쟁취한 1963년 12월 12일에 열리는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그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는지를 말해준다.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그 행사는 키히카가 교수형에 처해졌던 나무가 서 있는 시장에서 열린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 나무가 보이는 자리에서 독립투사들과 영웅들, 특히 키히카를 추모하는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역설도 그런 역설이 없다. 물론 그는 연설을 수락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독립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키히카를 죽게 만든 배반자를 색출해 나중에 처단하려고 한다. 그들은 키히카의 친구였지만 나중에는 변절해 동족에게 등을 돌리고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부역했던 카란자가 키히카를 죽게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키히카의 여동생

몸비까지도 그를 유다라고 부를 정도다. 그들은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려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키히카를 밀고해 죽게 만든 죄로 어딘가에서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중 하나인 R장군의 말은 구체적으로 그를 지목한 말이다. “키히카를 배반했던 자가 지금 여기 군중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자가 단상으로 나와 우리 앞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고백하고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카란자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앞으로 나가 고백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 카란자가 아니라 무고가 앞으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연설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리고 연설하러 나왔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웅으로 받드는 그의 입에서 나올 감동적인 말을 기대한다. 그런데 의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 그는 문장을 끊어가며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유다보고 나오라 했습니다. 당신은 키히카를 여기 있는 이 나무에 매달게 만든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백인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줄곧 나의 삶을 살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월의 무게가 어깨로부터 들려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고백을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며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다가 어딘가로 끌려가서 죽는다. 콘래드의 소설에서 라주모프가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반 행위를 고백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고막이 터져 청각장애인이 되어 영원히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처럼, 무고는 자신이 가장 안전해 지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목숨을 잃는다, 아니 버린다.

『한 톨의 밀알』은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도덕적, 윤리적 기반으로 한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죄의식에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무고도 죄의식에서 자신의 배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목숨을 버린다. 복음서는 유다가 돈을 바라고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기도 하고, 스승을 제거하

려는 유대인 사제들과 내통해서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랬다고도 하는데, 응구기는 예수를 배반한 유대의 행위에서 인간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배반 행위의 원형을 찾았다. 그런데 무고의 배반은 키히카의 머리에 붙은 현상금을 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적에게 부역하거나 내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는 식민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이고, 케냐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독립투사인 키히카가 자신을 찾아오면서 처하게 된 실존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기적인 몸짓에서 그랬을 따름이다. 작가는 복음서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케냐의 식민지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활용한 셈이다. 결말도 마찬가지다. 무고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죽음을 맞는 것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유다의 이야기를 변형시켜 활용한 것이다.

『한 톨의 밀알』은 무고의 이야기로 읽으면 유다의 이야기가 원형적 틀이 되는 개인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소설은 케냐라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읽게 되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가 된다. 바로 이 공동체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보다 어찌면 더 중

요할지 모른다. 소설은 성서를 자주 인용하고 성서에서 행동의 원리를 찾는다. 특히 무고의 밀고로 교수형을 당한 키히카는 성서를 끼고 살았던 청년이다. 그는 밀줄을 그어가며 성서를 읽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의 다음 구절에 빨간 줄을 그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걸 똑똑히 보았으며, 억압을 받고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도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노라.” 그의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케냐를 유린하고 케냐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성직자가 되었을 사람이다. 그는 성서에서 행동의 규범과 방향을 찾아낸다. 그는 무고에게 지하운동을 조직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며 이렇게 말한다.

“어떤 말도, 어떤 기적도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느님이 이집트의 모든 첫아들을 죽였지요. 왕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첫아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들의 첫아들까지 모두 죽였어요.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였죠. 그 사건 다음 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예요.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논리를 성서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포악한 식민 통치를 없애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소수가 죽으면 다수가 사는 거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의 의미죠.”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소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열쇠는 “한 톨의 밀알”이라는 제목에 있다. 크게 보면 편이 갈리어 싸운 사람들 모두가 한 톨의 밀알이었는지 모른다.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키히카 같은 영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배반해 죽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무고도, 아내가 보고 싶어 조직의 맹세를 깬 기코노(“나 자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나라 전체라도 백인에게 팔아넘겼을 것입니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한 톨의 밀알이었는지 모른다. 독립은 영웅들만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립은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말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선 곳에서 서로를 만나는” 계기일지 모른다. 그래야 화합도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 뿌려진 밀알들로부터 어렵게 나온 싹을 소중히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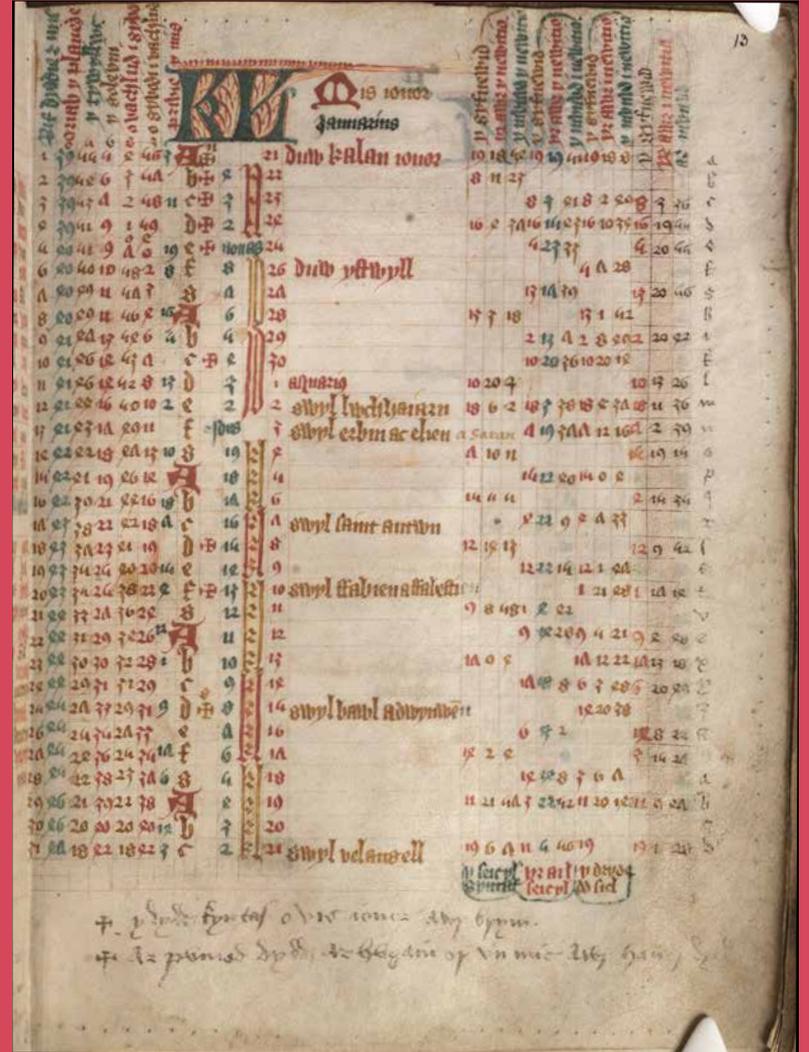
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역할이다. 소설의 맨 앞에 인용된 코린도 전서의 구절이 소설 곳곳에서 인용된 성서의 구절들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리석은 자여, 심은 씨를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느니라. 네가 심는 것은 장차 이뤄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일일 뿐이라.” 이 구절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서의 말을 변주한 것이고, 응구기가 소설 제목 “한 톨의 밀알”을 복음서에서 차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희망이 실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케냐가 1963년에 독립했으니 응구기가 1967년에 『한 톨의 밀알』을 출간했을 때는 그러한 희망이 실현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 식민주의자들이 물러났으니 이제는 곳곳에 뿌려진 밀알들이 싹을 틔우고 힘차게 자라는 환경만 조성하면 되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의 역사가 말해주고, 응구기가 이후에

발표한 소설들, 즉 『피의 꽃잎』(1977), 『십자가 위의 악마』(1980), 『마티가리』(1987), 『까마귀의 마법사』(2003)가 증언하듯, 식민 시대에 뿌려진 씨앗들은 제대로 발아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했다.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은 민중의 열망을 배반하고 배신했고, 식민주의는 독재와 신식민주의로 이어졌다. 그러한 배반과 배신을 소설의 형태로 증언한 응구기는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케냐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아야 했다.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반세기 전에 발표된 『한 톨의 밀알』을 읽는 것은 그래서 서글픈 일이다. 식민주의가 끝났어도 여전히 더 많은 밀알이 뿌려져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니까. 그리고 열매는 여전히 미래의 일로 남아 있으니까. ☹



그동안 '함께 읽는 세계 문학'을 집필해  
주신 왕은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3page\_A Welsh calendar of saint days, 1488-1498

성인력 (聖人曆, [라틴] proprium Sanctorum, [영]proper of the Saints)

연중(年中)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인정하고 경축하는 성인들의 축일을 규정한 책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배열하여 로마 미사경본에 기록해 두었다.

참고가 되는 책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성인들의 목록을 모은 로마 순교록이 있다. 한편 로마 가톨릭교회 전체에서 미사와 성무일도 전례에서 기념하는 성인들의 축일을 선정하여 만든 달력을 로마 보편 전례력이라고 한다. 또한 로마 보편 전례력에 지역 교회나 수도 가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인 축일을 덧붙여 만든 것을 고유 전례력이라고 부른다.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 아담은 왜 블랙(Black)이어야 했는가?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교회

작년에 <블랙 아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0만 정도의 흥행을 기록했으니 히어로 영화로서는 그리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아마도 그 제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으로부터 영화를 블랙이라고 하는 한 부분과 아담이라고 하는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랙은 특정한 인종적 편견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코믹스도 영화도 그것을 내놓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코믹스에서 블랙은 처음에는 선(善)역이라고 자부하는 캡틴 마블이 아담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블랙(검정)은 새롭게 해석되는데, 아담은 스스로 이 “블랙”을 의식의 깊은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악과 부정을 퇴치하는 색이라고 정의합니다. 타인이 붙여준 블랙의 뜻을 스스로 새롭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5천 년 만에 깨어난 테스 아담이 아몬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은 슈퍼 히어로에 열광하며 자신들의 나라인 칸다크에도 슈퍼 히어로가 있다면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테스 아담의 이름이 올드하다고 평가하면서, (몸에) 블랙이 많으니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히어로들처럼 망토도 입고, 이름도 바꾸면 유명해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블랙이 지니고 있는 역사나 의미 등은 모두 무시되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색으로서의 멋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처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곧 선과 악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영화에서, 호크맨은 기존의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대가 악당이라는 것 하나만 알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닥터 페이트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영화 <블랙

아담>을 관통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천 년 전, 테스 아담에게는 아들 후루트(원작은 조카 아만)가 있었습니다. 후루트는 폭군 아르톤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루트를 왕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되는 순간, 마법사 의회의 선택을 받았고 마법사 샤잠의 능력을 물려받아 영웅(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 후루트의 영웅적인 활약에 분노한 왕은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고, 후루트는 살아남은 그의 아버지에게 샤잠의 능력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루트는 군사들의 활에 쓰러져 아버지의 품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영화 속 블랙 아담이 빌런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믹스 속 블랙 아담은 전혀 다릅니다. 마법사 샤잠은 소년 아만에게, 살해된 가족의 복수를 하고 압제자들의 침략에서 칸다크를 구할 수 있도록, 신들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결하고 이타적인 아만은 죽어가는 삼촌 테스 아담에게도 그 힘을 나누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아담은 칸다크를 해방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조카를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샤잠은 결국 그를 봉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하게 봉인에서 풀려난 아담은 여전히 힘에만 관심을 갖습니



블랙아담, 2022  
액션, 모험, SF | 미국 | 125분



다. 그는 사잠의 능력을 얻은 빌리라는 소년을 찾아가 그 능력을 뺏고자 하지만, 오히려 소년의 속임수에 가지고 있던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블랙 아담도 칸다크에서는 소년들마저 총을 들고 싸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 아담이 오직 칸다크만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은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 그 이름은 흙(아다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에덴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하와와 함께 죄를 지은 후에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을 일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자손을 두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아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랙 아담은 칸다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창조된 존재는 아니었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잠의 힘을 얻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올림포스 산에서 인간의 삶을 엿보고 개입하는 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믹스에서 블랙 아담은 이런 점에서 자

신의 신원을 명백하게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신에게 힘을 받은 거지. 신의 의지를 행할 뿐이야.”

하지만 반쪽만 인정받습니다. “뭘 원하는지는 알지만, 사람을 살리겠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블랙 아담은 아담보다는 카인을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인은 하느님의 관심을 원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이 받았던 인정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치 트롤리 딜레마처럼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열차에 다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선택이 아벨을 죽이면 자신에게로 올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코믹스 속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소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선역이라고 자부하는 JSA(Justice Society of America)와 일련의 악당들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역사 속 냉전과 비슷합니다. 오직 칸다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블랙 아담

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를 고향(칸다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는 공동의 적이 존재합니다. 아담은 영웅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 파괴와 살육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문을 외워 힘을 포기하고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관을 통해서 어둠(사박)의 힘을 얻은 아크톤 왕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등장했고, 아담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백기사(White Knight)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호크맨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네(아담)식의 정의는 어둠을 불러오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떤 식으로든 칸다크의 자유를 바랐던 이들은 “이 어둠 덕분에” 당신(호크맨)같은 히어로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옛 권력을 상징하는 왕좌를 부수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이스마엘과 싸웠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관찮은 팀, 훌륭한 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찮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믹스 속 블랙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칸타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총족되지 않는 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힘에 대한 욕망은 아담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느님처럼”(창세 3,5)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담은 이미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지만 하느님은 갖고 계신 힘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욕망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힘을 “어떻게든” 갖고 싶다는 욕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이 이 두 가지 욕망이 빚어낸 사건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욕망을 갖고 있음을,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사해지역의 이야기들 - 사해, 마사다, 쿨란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진파랑, 하늘빛 파랑, 시퍼런 파랑 등 ‘파란색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홍해를 뒤로하고 다시 90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팀나 구리광산을 지나 요트바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광야의 파프리카 하우스를 지나 끝없이 펼쳐지는 마른땅이 지칠 때 짬 고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해 미네랄 공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해에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있구나를 알게 해 주는 하얀 포타슘 가루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포타슘은 비료의 원료라고 합니다. 곧이어 남부 사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층층이 다른 다양한 파란색들은 아니지만, 옥빛의 물과 중간중간 떠 있는 소금 결정들이 신비하게 다가옵니다. 염전처럼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해 물이 점점 줄어들며 미네랄 채취에 어려움이 있어 구간을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그러한 사해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광야에서 보았던 황토색

의 돌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돌산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라고 하지요. 뒤를 돌아 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황토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회색빛의 암염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회색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돌입니다. 사해의 동쪽 건너편에는 모압 산지, 그리고 요르단 땅이 보입니다. 초아르일 것으로 추정되는 산자락의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롯의 두 딸이 만들어낸 모압족, 암몬족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홍해로부터 200km를 달려와 남부 사해와 북부 사해가 나누어지는 곳, **에인 보켄(EIN BOKEK)**에 오늘 하루 머물러보겠습니다.

호텔이 사해를 따라서 늘어서있는 것이 홍해에서 본 것과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좀 더 조용한 편입니다. 해수면 400미터 아래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짙은 산소와 온화한 기후, 잔잔한 사해 수면에 동동 떠있는 소금과 사람

들이 재밌습니다. 홍해에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사해에는 노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피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사해호텔의 백미는 뷔페입니다. 아마도 전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가장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높은 염도의 물에서 피로를 푼 사람들이 뽕뽕한 얼굴을 하고 산해진미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게 피로를 풀고 다시 90번 도로에 올라 이동합니다. 15분쯤 지났을까 도로 왼쪽으로 **마사다(Massada)**를 알리는 갈색 표지판이 보입니다. 좌회전을 하여 바라보니 일부러 만든 것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큰 바위산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산에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뱀길(snake road)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신교육을 할 때에 새벽에 이곳을 등정하여 모압 산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원후 70년, 로마제국에 의해 주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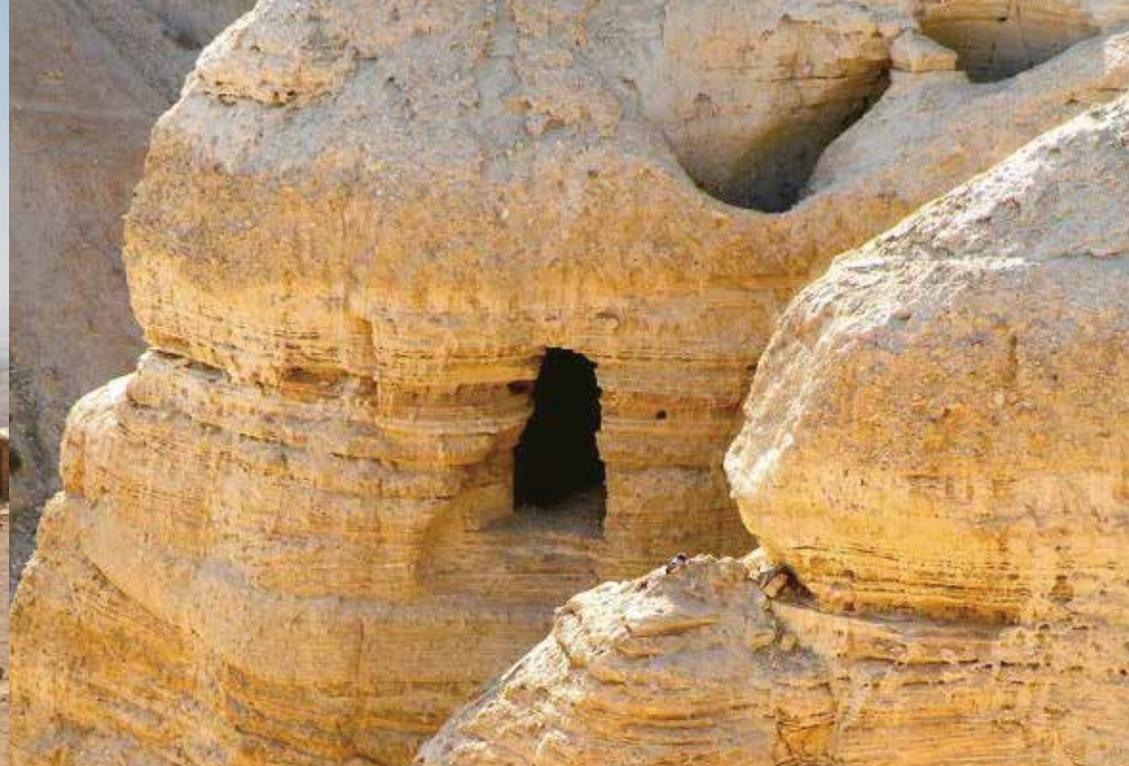




↑ 마사다 항공사진



↑ 마사다



↑ 쿨란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곳에 모여 끝까지 항쟁한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사다는 요새라는 뜻으로 450m에 달하는 자연 발생한 돌산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보면 남북으로 600m, 너비 250m의 평평한 땅으로 되어있는 메사 지형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정권을 잡은 헤로데 대왕이 본격적으로 요새화 시키고 로마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5m에 달하는 이중으로 된 벽으로 둘러싸아 놓고 37개의 망루가 있는 그야말로 견고하기 짝이 없는 요새였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빗

물을 모으는 수로 시스템을 만들고, 총 75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 저장고가 있었으며, 이것은 목욕탕에 이용하고도 남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카이사리아에서도 헤로데 대왕이 만든 인공 항구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는데, 이곳은 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악마 같은 왕이 ‘이런 천재 건축가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규모의 창고는 이곳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비둘기사육장을 만들어서 배설물은 연료로 사용하고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재밌게 다가옵니다. 북쪽과 서쪽에는 헤로데 대왕이 만든 궁전의 잔해들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북쪽의 3층으로 된 궁전은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모습의 도시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후 66년부터 시작된 유다-로마 전쟁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 전세가 기울게 되었고, 엘리에제르 벤 야일이 이끄는 967명의 열혈당원들은 마사다로 도망와서 게릴라전을 일삼으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

의 포위에도 3년간을 버텨내다가 플라비우스 실바의 로마 10군단에 의해 점령되는데, 그것도 서쪽 벽에 토산을 6개월 동안 쌓아올려 가능했다고 합니다. 서쪽 벽의 토산은 지금도 볼 수 있는데, 2천 년 전의 그 현장감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점령당하기 전날 밤, 로마군인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할 미래를 내다본 열혈당원들은 모두 자결로 영원한 자유를 얻기로 결의합니다.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인과 자식들을 살해하고 다시 모여서 그중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죽이고 그중 한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결을 했다고 합



↑ 쿰란 정결레터



↑ 사해



↑ 사해호텔  
↓ 사해 미네랄공장

니다. 그중 한명이 차마 가족들을 죽이지 못하고 물 저장고에 숨겨놓았기에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이곳에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다니 아까와는 다른 시선으로 마사다를 보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머지않아 국립공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쿰란(Qumran)**입니다.

이곳은 거의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찾는 곳으로서, 마사다에 열혈당원들이 있었다면 이곳은 에세네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전후에 있었던 유다교의 한 종파인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엄격한 수련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처럼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필사했던 이들은 마사다로 가던 로마군대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목숨처럼 여기던 양피지 두루말이 성경을 숨겨놓고 도망가거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워낙에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기에 그들의 존재, 또는 이야기가 극히 일부만 전해져 내려오다가 베두윈 목동에 의해 감추어진 양피지 성경이 발견되며 비로소 세상에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지껏 발견되어진 성서 중에 가장 오래된 성서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서가 기원후 1000년정도 되었다고 하니 천년의 세월동안 성서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기대하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 멀리 북부 사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부 사해가 하늘빛의 호수같은 느낌이었다면 북부 사해는 정말 큰 바다 같습니다. 하늘의 태

양은 사해를 더욱 반짝이게 비추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이곳이 광야이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동쪽 너머의 모압 산지의 끝부분에 느보산이 보입니다. 모세 성인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너머에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 성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렇게 광야에 서서 이스라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생각해봅니다. 🌄

### 정석의 이 도시(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러시아 민족화가 일리아 레핀을 만나다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트 3국 여행 마무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였다. 러시아는 세계 9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구는 1억 5천 만명이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80배, 미국의 2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종교는 러시아정교가 80%로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15% 정도다. 1,300만 명 인구의 수도 모스크바가 최대 도시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두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500만 명 조금 넘는다.

‘상트’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란 이름은 이 도시를 건설한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가 지었다. 1703년부터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해, 9년 뒤 1712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고 도시 이름을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었다. 베드로 성인의 이름을 땄지만 실상 베드로의 러시아어인 ‘표트르’ 본인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싶다.

도시의 이름을 빼앗겼던 때도 있었다. 1914

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독일제국에 대한 반감이 일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신 ‘페트로그라드’로 바뀌었고, 1918년에는 모스크바가 수도가 되면서 수도의 지위도 잃었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레닌그라드’가 되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본래 이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다.

상트에서 귀한 사람을 만났다. 러시아를 대표 하는 민족화가 일리아 예피모비치 레핀(Ilya Yefimovich Repin, 1844~1930)이다. <불가 강 배를 끄는 인부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등 그의 이름과 대표작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살던 집을 직접 가보고 집과 미술관에서 그가 그린 그림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와 눈앞에 마주했을 때의 느낌은 차원이 달랐다.

일리아 레핀은 1844년 러시아 추구예프에서



↑ 일리아레핀 기념박물관



↑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긴 행렬

태어났고, 15세 때 이콘 화가 부나예프의 견습생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1863년(19세) 상트로 이주해 데생 교육을 받았고, 1864년(20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이동파의 리더 이반 크람스코이에게 그림을 배웠다. 1871년(27세)에는 졸업작품 <다시 살아난 아이로의 딸>이 금상을 받아 1급 공식화가 자격과 6년간 해외유학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졸업 후 유학 대신 <불가강 배를 끄는 인부들>을 3년에 걸쳐 완성한 뒤, 1873년(29세) 유럽 여행을 떠나 3년을 보내고 귀국했다. 1878년(34세) 모스크바로 이주해 톨스토이, 무소르그스키 등과 사귀었고, 1882년(38세) 상트로 돌아와 이동파 전시회에 출품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혁명가 체포> 등 작품을 그렸다. 1894년(50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 교수로 임용되었고, 1901년(57세) <소비에트 국가의회 100주년 기념회의> 작품을 완성한다. 이후 오른손을 못 쓰게 되었고 1907년(63세) 은퇴한 뒤 생애 말년을 쿠오칼라에서 보내다 1930년(86세) 사망한다.

상트 북서쪽 발트해안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핀란드 국경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일리아



↑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는 사람들

레핀이 살던 집이 있다. 2층 목조건물인 그가 살던 집이 지금은 ‘페나티(Penates)’란 이름의 일리아 레핀 기념관 겸 박물관이 되었다. 상트에서 멀지 않고 발트 바닷가 휴양지의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어서 유명인의 별장이 많았고, 특히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 1948년에 쿠오칼라로 불리던 지명이 일리아 레핀을 기념하는 뜻에서 ‘레피노’로 바뀌었다.

상트에서의 둘째 날은 종일 미술관 탐방을 했다. 먼저 들른 곳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 에르미타주 미술관 내부

었다. 영국 대영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명소다. 18세기 러시아제국의 황후이자 여제였던 예카테리나 2세가 겨울궁전 가까이에 미술관을 짓고 수집품을 모은 데서 시작되어 지금은 주변의 여러 부속건물들을 망라해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불린다. 고대부터 근세까지 약 300만점의 작품들을 소장한 거대한 미술관이다.

일요일 오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다. 유명 작품들 앞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앞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돌아온 둘째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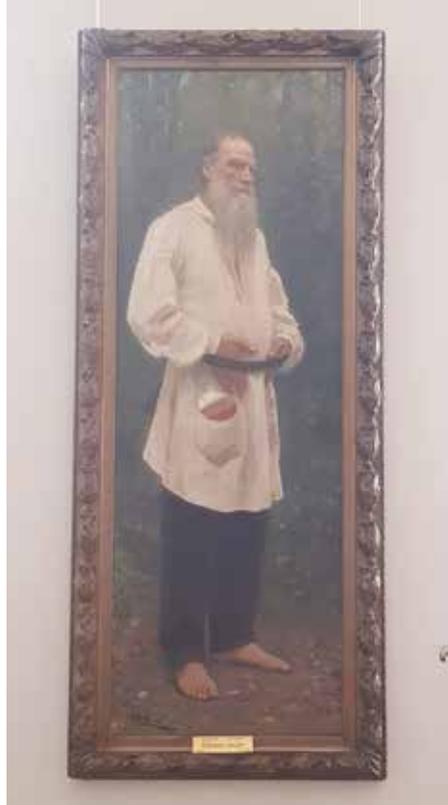
이 그저 반가운지 통통 부은 눈으로 아들을 얼싸안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큰 아들의 반감어린 눈빛, 아랑곳 않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의 표정과 몸짓을 한참 바라보았다. 하느님이 얼마나 용서에 빠르고 관대한 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수의 비유를 정말이지 절절하게 그려낸 렘브란트의 대작이었다.

에르미타주 구관에 옛 그림들이 주로 전시되었다면, 신관에는 19세기 이후 그림들이 많았다. 칸딘스키, 피카소, 마네, 모네, 고호, 고갱, 세잔 등 중고등학교 미술시간에 배웠던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보게 되니 오랜 친구

를 만나듯 아주 반가웠다. 신관은 구관에 비해 사람들도 적었고 그래서 관람도 여유로웠다. 어느 방 하나는 온통 미인들 그림뿐이어서 한참 머물렀다. 마치 살아있는 여인들을 보는 듯 착각을 일으킬 만큼 세밀한 표현이 대단했다.

오후에는 '러시아 미술관'을 방문했다. 미술관 마당에 서있는 푸시킨 동상이 눈길을 끌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유럽 여러 나라 화가들 작품이 전시되었다면, 러시아 미술관에는 러시아의 대표적 작가들 작품을 전시한다. 과거 미하일로프스키 궁전 건물을 미술관으로 바꿔 약 40만점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러시아 화가들, 특히 일리야 레핀의 여러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오후였다.

<볼가 강의 배를 끄는 인부들>은 쨍한 눈빛을 마주하는 게 마음이 아렸다.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그린 졸업작품 <다시 살아난 아이로의 딸>에도 한참 눈길이 머물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작 <1901년 5월 7일 소비에트 회의>는 그림 속 인물들이 실물처럼 보일 만큼 큰 작품이었다. 익살스러운 사람들의 표정을 묘사한 <답장 쓰는 자포로사 코사크들> 그림과 <무고한 생명을 구한 니콜라스 성인> 그림도 눈길을 붙잡는 마력이 있었다.



↑ 톨스토이 초상화

일리야 레핀이 그린 톨스토이 초상화도 압권이었다. 하얀 옷에 맨발로 달관한 것 같은 표정으로 서있는 톨스토이 그림을 한참 보았다. 톨스토이는 레핀의 집에 자주 들르고 종종 만났는데, 둘은 어떤 사이였을까 궁금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발트 3국 여행의 숨은 보물은 미술관 투어였다. 상트의 두 곳 미술관에서 작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



↑ 1901년 소비에트 회의 그림



↑ 볼가강 배를 끄는 인부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 성 마태오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따르면, 성 마태오(St. Matteo, 1세기경)는 레위라 불렀는데(마르 2, 13),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오라고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마태오는 가파르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 그의 직업인 세금 징수원은 로마제국 시대에 대부분 사람에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런 마태오를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했으며, 그는 즉시 일어나 세관을 떠났다. 마태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첫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흑해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에티오피아로 전교하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거나,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한다.

마태오 성인을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돈을 세고 있는 세리 마태오를 불러 “나를 따르라”라는 한 마디에 자신의 장부와 돈, 돈주머니를 모두 버리고 예수

님의 제자가 된다. 그는 현실의 이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모범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마태오가 천사에 의해 영감을 받아 첫 번째 복음서를 집필했다는 것에 기인하여 주로 날개 달린 천사와 복음서를 동반한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나타내는 도끼나 창과 함께 묘사되기도 한다.

성 마태오에 관한 그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로마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성당인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San Luigi dei Francesi)의 콘타렐리 경당에 걸린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의 <성 마태오의 소명>, <집필하는 성 마태오>, <성 마태오의 순교> 작품이다. 1599년에 마태오 콘타렐리 추기경은 카라바조에게 자신을 위한 경당에 대형 제대화를 주문했다. 카라바조는 17세기 유럽회화의 혁신적인 미술가로, 밝고 어두운 대비의 강렬한 명암법 사용과 이전에 이상적으로 표현하던 종교적인 주제를 벗어나 사실적인 자연주의를 작품의 특징으로 한다.



카라바조, <성 마태오의 소명>, <집필하는 성 마태오>, <성 마태오의 순교>, 1602년,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성당, 콘타렐리 경당, 로마

### 말씀을 따른다

카라바조의 <집필하는 성 마태오>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화가의 표현이 담겨있다. 글을 몰랐던 마태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복음서 작성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태오는 의자에 무릎을 느슨하게 올리고 있지만, 천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강렬하다. 사실 카라바조가 첫 번째 그린 마태오 성인은 현재 소실되고 없지만, 늙고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이 더 가까웠다. 그러나 주문자가 그 그림에 경의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여 카라바조는 마태오를 다시 그렸다. 마태오는 고대 철학자 같은 옷에 얼굴은 고귀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지상의 마태오와 천상의 천사는 서로 마주하며 교감하고 있다. 천상 공간에 자리한 천사가 마태오에게 불어넣는 영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이로써 마태오 복음의 신성함과 권위가 그림에 부여된다.

### 부르심을 따른다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은 매우 극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하는 한마디에 자신의 장부와 돈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면 오른쪽에 어깨 옆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탁자에 앉아 있는 마태오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은 베레모를 쓴 마태오를 가리키며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는 예수님의 이런 느닷없는 지시에 당황한 표정이다. 둥근 탁자에 앉은 다섯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리킴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탁자 오른쪽의 두 젊은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표정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만 가득할 뿐이다. 등을 보이는 젊은이는 예수님을 향해 몸을 기울여 큰 관심을 보이고, 미소년처럼 보이는 젊은이는 약간 놀란 표정이다. ‘예수의 부르심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눈치들이다. 이와 달리 왼쪽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등장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 노인은 꽤나 재력 있고 지적으로 보이나, 돈을 계산하는데 정신을 놓고 있다. 또한 그 앞쪽 젊은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열심히 돈을 세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 오직 한 사람, 베레모



카라바조, <집필하는 성 마태오>, 1602년,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성당, 콘타렐리 경당, 로마

를 쓴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르침에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오른손으로 고개를 숙인 젊은이와 같이 돈을 세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돈주머니를 끌어안고 돈을 세던 세관 마태오는 맨발을 한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공간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뒤를 따른다. 구원의 빛은 탁자에 둘러앉은 다섯 명 모두에게 내리비추고 있으나, 응답하려하는 사람은 오직 베레모를 쓴 마태오뿐인 것이다.

빛과 어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표현한



카라바조, <성 마태오의 소명>, 1599~1600년,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성당, 콘타렐리 경당, 로마

카라바조는 이 작품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이 있는 콘타렐리 경당에 가보면, 그림 오른쪽 위로 난 반원형 창에서 실제로 빛이 들어오고 있다. 카라바조는 그림 속에 구원을 상징하는 ‘신성한 빛’을 실제 공간의 빛을 투과하여 생생함을 더하며 극적인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빛은 마태오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실내 가득한 어둠은 마태오의 타락과 죄 많은 삶을 신성한 빛과 대비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몸에서 직접 뿜어 나오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의 뒤 어딘가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 빛은 그의 손을 따라 마태오에게 뻗어가고 있다. 정작 빛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자신의 얼굴 일부분과 마태오를 가리키는 손만이 빛으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손을 가리켜 선택하는 순간, 가장 극명한 빛은 바로 탁자에 앉아 있는 마태오에게 집중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마태오가 빛나도록 하신 스승 예수님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듯하다.

반면, 벽 위쪽에 창문은 빛을 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창문의 덧문은

활짝 열려 있긴 하지만 십자가 형상의 격자무늬를 한 속문은 거의 닫힌 상태이다. 안팎으로 나 있는 문은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고, 말씀의 육화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내포한다. 구원의 빛! 그림의 틀 밖, 즉 세상 밖으로부터 예수님의 출현으로 비롯된 구원의 신성한 빛이 어둠을 가르고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상한 부분은 예수님을 거의 가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다. 또한 그의 손짓은 예수님의 부름의 손짓과 동일하다. 예수님의 손짓은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 벽화에 그린 작품 중 <아담의 창조>에 나오는 아담의 손과 유사하다. 카라바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1코린 15,22)임을 통찰한 것이다. 그리고 카라바조는 처음부터 베드로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가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상징인 사도 베드로를 신성한 세계와 인간적인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자로 그림 속에 등장시키고, 마태오 역시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카라바조의 작품 <성 마태오의 소명>은 로마에서 건달들이 즐겨 찾는 도박판과 선술집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실존 인물들로서 전혀 성스럽거나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얼굴조차 그다지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

게 화가는 성경의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일상적인 생활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르는 손짓의 대상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죽음을 따른다

<성 마태오의 순교> 장면은 다른 두 작품과 비교해볼 때, 보다 극적으로 표현돼 있다. 콘타렐리 추기경이 제대화를 주문하면서 자기 원하는 그림의 묘사를 남겼다. “성 마태오는 옷을 입고 있고 미사를 집전하다가 병사들의 손에 죽는다. 마태오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거나 쓰러지는 중이다. 마태오는 처형당하고 있으나 아직 죽진 않았다. 그때 순교의 현장에 남녀노소 여러 명의 사람들과 천사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마태오의 순교 장면에서 경악하고 있고, 일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나 연민을 품고 있다.” 카라바조는 칼을 거머쥔 사형 집행인의 모습을 중심에 놓고 마태오의 순교 장면을 구성했다. 마태오의 순교 장면에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여러 명의 사람이 커다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카라바조의 빛과 어둠의 표현이 최고조에 달해 마태오의 순교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카라바조, <성 마태오의 순교>, 1599~1600년,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콘타렐리 경당, 로마

듯하다. 누드에 가까운 살인자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진 마태오에게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듯 마태오의 손을 움켜 쥔 채 칼을 휘두르려 한다. 이를 목격한 아이를 비롯해 주변 인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때 하늘의 천사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태오의 손에 건네주고 있다. 대형 화폭에 빛의 강도를 주요 인물들에게 더 부가하여 주제의 긴박감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극적이고 긴박한 순간에 어떠한 내적 동요도 보이지 않는 인물이 화면 뒤편에 보인다. 카라바조 자신의 초상이다. 마태오의 죽음의 순간에 카라바조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거니신 것처럼 거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성 베다 사제의 강론에서) ☞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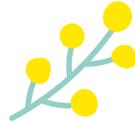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직장공동체 견진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견진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견진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기간 : 5. 22(월) ~ 6. 26(월), 매주 월 20:00~21:00 (총 5회)
- 교리장소 : 가톨릭회관 205-3호
- 교육비 : 30,000원 (교재대금, 사진비, 장소사용료, 꽃사지 등)
- 접수마감 : 5. 10(수) 17:00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견진성사 : 2022. 7. 2(주일), 13:30



###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연습/미사: 매주(금) 19:30/둘째(금) 20:00,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760-6638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http://mdbj.or.kr) 전화 02-774-3488

###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http://mdbj.or.kr))





### **Fleur-de-lis**

The fleur-de-lis, also spelled fleur-de-lys, is a lily (in French, fleur and lis mean 'flower' and 'lily' respectively) that is used as a decorative design or symbol.

The fleur-de-lis became "at one and the same time, religious, political, dynastic, artistic, emblematic, and symbolic," especially in French heraldry. The fleur-de-lis has been used by French royalty and throughout history to represent saints of France. In particular, the Virgin Mary and Saint Joseph are often depicted with a lily.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